

# 치매노인의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에 따른 주부양자의 피로, 우울, 생활 만족도 변화

이영휘<sup>1</sup> · 박경희<sup>2</sup> · 성연실<sup>3</sup>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sup>1</sup>, 대학원생<sup>3</sup>, 인하노인간호연구센터<sup>2</sup>

## A Study on Changes of Primary Caregivers' Fatigue,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by Using Dementia Day Care Service

Lee, Young Whee<sup>1</sup> · Park, Kyung Hee<sup>2</sup> · Seong, Yeon Sil<sup>3</sup>

<sup>1</sup>Professor, <sup>3</sup>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sup>2</sup>Researcher, Inha Gerontological Research Center

**Purpose:**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dementia day care service affects fatigue,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caregiver.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from 6 Dementia Day Care Center in Incheon. Thirty nine primary caregivers answered the questionnaires. Pre-test was done before demented elders start using the dementia day care center and post-test was done five months after.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givers' fatigue level after using dementia day care service( $t=2.188, p=.035$ ). Results of subcategories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givers' physical fatigue level( $t=2.270, p=.029$ ) and psychological fatigue level( $t=2.277, p=.029$ ) after using dementia day care service. However,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givers' neurological fatigue level( $t=1.312, p=.197$ ).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givers' depression level( $t=3.066, p=.004$ ) and life satisfaction( $t=-2.131, p=.040$ ) after using dementia day care service.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dementia day care service is helpful for family with demented eld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dementia day care center in terms of its size and numbers in order to support increasing number of demented elders and their families.

**Key Words :** Fatigue,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Dementia, Caregiver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2020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될 전망

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 역시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배가적으로 증가하며 현재 우리나라 치매 발생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Corresponding address:** Lee, Young Whee,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253 Yonghyun-dong,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82-32-860-8202, E-mail: ywlee@inha.ac.kr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INHA-2008).

투고일 2008년 4월 29일 심사회의일 2008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8일

보고되고 있다(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5). 이러한 치매는 뇌의 대뇌피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로 인한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전반적인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행동, 정신기능의 감퇴를 초래하게 된다(Fitten, 2006). 따라서 다른 질환과 달리 노인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위해 돌보는 사람이 항상 노인과 같이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부양자는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서적 갈등, 삶의 질 감소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Brazel, Bedard, & Willison, 2002; Burgener & Twigg, 2002; Jun, 2003).

우리나라는 치매노인 돌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요양시설에 의존하거나 혹은 가족끼리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 대부분이었다(Hwang & Han, 2003; Kim & Lee, 2001). 그러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익숙한 환경으로부터의 이탈과 가족의 심리적 갈등을 갖게 하는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의 보호는 노인을 가정에 고립시키는 문제와 더불어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가서비스에 기초한 주간보호서비스 사업이 대두되었다.

주간보호서비스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 동안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과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Kim & Lee, 2001; Park, 2006). 이러한 서비스의 형태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는 사업으로 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국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치매노인에게서는 가족과 함께 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족 역시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면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효과성에 대한 결과는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지금까지의 주간보호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Balla et al., 2007; Kim, 2002; Lee, 2006). 그러나 치매노인 부양자를 위한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부양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는 것이라 할 때 이와 관련된 주

간보호서비스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부양자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치매노인과 같이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증상이 악화되어 식사부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로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은 부양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켜 우울과 피로의 증상을 유발시키게 된다(Jun, 2003; Kim & Lee, 2001; Lee, Kim, Kim, Kim, & Seo, 2003).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는 부양자의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Burgener & Twigg, 2002; Vellone, Piras, Talucci, & Cohen,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에 따른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우울, 피로와 더불어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추후 주간보호서비스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치매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과 이용 5개월 후의 주부양자의 우울, 피로도와 생활만족도 차이를 확인하여 치매주간보호서비스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3. 용어정의

### 1) 피로

피로는 신체적, 정신적 및 신경 감각적인 노동부하에 의한 생체의 반응이며 고단하다는 느낌으로(Ko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Kim(1999)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자가 현재 지각하고 있는 피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 우울

우울은 슬픈 감정이나 침울한 기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장애이다(Cho, 2001). 본 연구에서는 Yesavage 등(1983)에 의해 개발된 노인우울척도를 Jung 등(1997)이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도구

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효율적으로 주위환경과 변화에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Kalish, 1975). 본 연구에서는 Generalized Life Contentment Scale(Rubin & Bannie, 1992)로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4) 주간보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 동안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과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Park, 2006).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각 구 보건소로부터 위탁되어 치매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있는 치매노인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센터 이용 교통편을 제공하는 송영서비스, 일상 활력징후 조사, 당뇨검사, 건강검진 및 독감예방접종 등을 포함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치매관련 증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치매상담 서비스, 인지기능과 신체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제공, 나들이, 소풍 등의 외부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제공. 그리고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교육을 위한 가족모임 등이 포함된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각 구 보건소가 중소병원과 간호학과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 센터는 운영비 일체를 인천광역시와 해당 구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1일 이용자 수가 20-30명 정도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피로,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피로, 우울, 생활만족도에 대한 5개월 동안의 변화를 조

사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5개월의 시차를 두고 진행된 전향적 서술적 조사 연구(Prospective descriptive study)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인천광역시와 각 구의 예산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내 6개의 치매센터에 주간보호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고자 하는 치매노인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2005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진행하였다. 각 구 치매센터의 이용은 해당 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의사로부터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표본 수는 Cohen(1987)이 제시한 행동과학에서의 적합한 검정력 .80을 기준으로 효과크기 .70수준에서 필요한 표본수인 33명을 넘는 표본의 크기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사전조사 47명 중 1명 사망, 4명 증상 진전으로 인한 시설 입소, 1명 거주지 이전, 2명 응답거부로 총 8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여 최종 본 연구의 대상은 39명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해당 구의 치매센터의 장으로부터 연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 각 구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치매노인이 센터 이용 적응기간인 일주일 후 지속적인 센터 이용이 확정되면 주부양자에게 연구목적과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자료수집은 송영서비스나 가족 모임 시 질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하였다.
- 치매주간보호서비스 이용 5개월 후 같은 방법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5개월의 시차를 두고 변화를 조사한 이유는 변화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이 없어 다음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즉, 프로그램 개입기간이 짧을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반면 기간이 너무 길 경우 치매노인 주부양자가 서비스에 대한 적응으로 인해 서비스의 변화 정도 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3. 연구도구

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지는 치매노인과 주부양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주부양자의 피로, 우울, 생활만족도에 대해 조사하는 척도로 구성하였다.

#### 1) 피로

피로는 Kim(1999)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신체적 피로에 대한 10항목, 정신적 피로에 대한 10항목, 그리고 신경적 피로에 대한 10항목의 총 3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서 서술하는 피로증상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으로 총 0-30점 범위 내에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자가 현재 지각하고 있는 피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2) 우울

우울은 Yesavage 등(1983)에 의해 개발된 노인우울 척도를 Jung 등(1997)이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0문항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하여 총 0-30점 범위 내에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Jung 등(1997)이 보고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 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1977년 Walter Hudson과 Giuli 등이 사회사업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로 개발하였던 것(Rubin & Bannie, 1992) 중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Generalized Life Contentment Scale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25-125점 내에서 점수

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치매노인과 주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치매노인의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전 후의 주부양자의 피로, 우울,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치매노인과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성이 32명으로 82.1%를 차지하여 대부분 여성이 노인을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40대 11명(28.2%), 50대 11명(28.2%), 60대 8명(20.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40대 미만이 5명(12.8%), 70대가 4명(10.3%)으로 나머지를 차지하였다. 연령의 분포는 최소 27세부터 최고 74세 범위에 분포하였으며, 주부양자의 평균연령은 53.54세였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7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도 9명(23.0%) 있었다. 종교는 기독교를 믿는 경우가 16명(41.0%)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6명(66.7%)으로 '있다'고 응답한 13명(33.3%)보다 많았다. 월 가정 수입을 조사한 결과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3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32명(82.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노인과 의 관계에서는 며느리가 17명(43.6%)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11명(28.2%)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치매 발병 후 노인을 돌본 기간을 조사한 결과 3년 미만이 16명(41.0%), 3년 이상 5년 미만이 12명(30.8%)으

**Table 1.** Characteristics of primary caregivers and demented elders (N=39)

Variables	Categories	n	%	Mean ± SD	Range
<b>Caregiver's characteristics</b>					
Gender	Male	7	17.9		
	Female	32	82.1		
Age(yrs)	< 40	5	12.8		
	40 - 49	11	28.2		
	50 - 59	11	28.2	53.54 ± 11.59	27 - 74
	60 - 69	8	20.5		
	≥ 70	4	10.3		
Educational level	≤ Elementary school	9	23.0		
	Middle school	5	12.8		
	High school	17	43.7		
	≥ College	8	20.5		
Religion	Protestant	16	41.0		
	Catholic	9	23.1		
	Buddhist	9	23.1		
	No religion	5	12.8		
Occupation	Yes	13	33.3		
	No	26	66.7		
Household income/month(10,000 won)	< 100	13	33.3		
	≥ 100 - < 200	7	17.9		
	≥ 200 - < 300	8	20.5		
	≥ 300 - < 400	8	20.5		
	≥ 400	3	7.8		
Marital status	With spouse	32	82.1		
	Divorced / separated	2	5.1		
	Not married	3	7.7		
	Bereavement	2	5.1		
Relationship to the elders	Spouse	11	28.2		
	Daughter in law	17	43.6		
	Son	4	10.3		
	Daughter	5	12.8		
	The others	2	5.1		
Caregiving duration(yrs)	< 3	16	41.0		
	≥ 3 - < 5	12	30.8	4.18 ± 3.83	.25 - 8
	≥ 5 - < 8	6	15.4		
	≥ 8	5	12.8		
Help from other family member or neighbor	Yes	17	43.6		
	No	22	56.4		
<b>Demented elder's Characteristics</b>					
Gender	Male	12	30.8		
	Female	27	69.2		
Age(yrs)	60 - 69	7	17.9		
	70 - 79	15	38.5	77.10 ± 8.75	60 - 91
	80 - 89	16	41.0		
	≥ 90	1	2.6		
Educational level	Illiteracy	16	41.0		
	Elementary school	11	28.2		
	Middle school	6	15.4		
	High school	2	5.1		
	≥ College	4	10.3		
Marital status	With spouse	13	33.3		
	Bereavement	26	66.7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 돌봄 기간은 4.18년이였다. 치매노인을 돌봄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2명(56.4%)으로 ‘있다’고 응답한 17명(43.6%)보다 약간 더 많았다.

치매노인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 여성이 27명(69.2%)으로 남성 12명(30.8%)보다 더 많았다. 연령은 80대가 16명(41.0%)으로 가장 많았고, 90대 노인도 1명 있었다. 교육수준은 무학인 경우가 16명(41.0%)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사별을 한 경우가 26명(66.7%)으로 가장 많았다.

**2. 치매주간보호서비스 이용에 따른 주부양자의 피로, 우울 및 생활만족도 변화**

치매진단을 받고 센터를 이용하게 된 노인의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과 이용 후 5개월 되는 시점에서 피로, 우울,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화를 조사한 결과 Table 2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피로 평균점수는 30점 만점에 12.44점 이었고, 이용 5개월 후 평균점수는 9.62점으로 2.82점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188, p=.035$ ). 하위영역에서는 신체피로의 경우 10점 만점에 이용 전 평균점수가 4.56점이었던 것이 이용 5개월 후에는 3.51점으로 1.05

점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270, p=.029$ ). 정신적 피로에서도 10점 만점에 이용 전 평균점수가 4.46점에서 이용 5개월 후 3.28점으로 1.18점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2.277, p=.029$ ). 그러나 신경적 피로에서는 10점 만점에 이용 전 평균점수는 3.41점을 나타내었는데 이용 5개월 후에는 2.82점을 나타내어 .59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1.312, p=.197$ ).

우울은 30점 만점에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전 평균점수가 15.62점 이었고, 이용 5개월 후는 12.59점으로 3.03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3.066, p=.004$ ).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에서는 125점 만점에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전 평균점수는 78.23점 이었고, 이용 5개월 후는 82.62점으로 4.39점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2.13, p=.040$ ).

**IV. 논 의**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짧은 기간 내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재가복지사업 중 치매주간보호센터

**Table 2.** The changes of primary caregivers' fatigue,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by using day care service (N=39)

Variables	Before using dementia day care services	5 months after using dementia day care services	t (p)
	M ± SD	M ± SD	
Fatigue	12.44 ± 7.26	9.62 ± 7.08	2.188 (.035)
Physical fatigue	4.56 ± 2.65	3.51 ± 2.52	2.270 (.029)
Psychological fatigue	4.46 ± 2.94	3.28 ± 2.33	2.277 (.029)
Neurological fatigue	3.41 ± 2.51	2.82 ± 2.66	1.312 (.197)
Depression	15.62 ± 7.41	12.59 ± 6.45	3.066 (.004)
Life satisfaction	78.23 ± 12.08	82.62 ± 11.50	-2.131 (.040)

에 대한 효과성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치매주간보호서비스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여자였고, 43.6%에서 며느리가 노인을 돌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994년에 서울과 인근지역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던 결과인 42.7%와 유사한 결과였다(Kwon, 1994). 또한 51%로 약간 비율이 본 조사에서 보다 높게 제시되었지만 경남 및 부산지역 거주 치매노인 부양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며느리가 주부양자였던 결과와도 동일하다(Lee, 1998).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는 며느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부양자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부양자의 연령에 대해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는데 며느리로서 이 연령층에 해당될 경우 부양자는 자녀 양육과 가사역할의 부담뿐 아니라 노인부양의 역할이 가중되어 역할에 대한 긴장감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주부양자의 역할 긴장감과 지지체계의 부족은 부양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환자의 발생이라는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부양자의 역할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립이 필요하겠다.

대상자의 피로, 우울과 생활만족도의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로는 30점 만점에 12.44점(41.46점/100점), 우울은 30점 만점에 15.62점(52.06점/100점)이었고, 생활만족도는 125점 만점에 78.23점(62.58점/100점)을 나타내었다. 같은 도구로 측정한 결과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Lee(2007)의 경우 일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경락마사지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에서 대상자의 피로는 50점 만점에 25.63점(51.26점/100점)을 나타내어 치매노인 주부양자보다 약간 높은 피로도를 나타내었고, 우울은 60점 만점에 17.06점(28.43점/100점)을 나타내어 치매노인 주부양자보다 낮은 우울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생활만족도에서는 중년 후기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Park(2007)이 진행하였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7점(71.40점/100점)을 나타내어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생활만족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에 따른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피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5개월 후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피로는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위영역에서도 신경적 피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후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피로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azel, Bedard와 Willison(2002)은 치매노인 부양자는 치매노인을 돌보느라 육체적인 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 신체적 건강이 약화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대상자의 신체적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다. 주간보호서비스는 낮 동안 치매노인을 센터로 모셔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부양자에게 휴식할 시간을 제공하여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전과 5개월 후 주부양자의 피로 정도의 하위 영역 중 신체적 피로정도가 가장 높았고 정신적 피로와 신경적 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주부양자의 치매 발병 후 노인을 돌보았던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4.18년이였다. 이렇게 신체적 피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치매노인 주부양자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치매노인의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치매노인을 돌보느라 육체적인 노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되는 반면 정신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돌봄 방법의 획득과 노인에 대한 적응으로 피로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Dijkstra, Sipsma, & Dassen, 1999).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우울점수는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후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우울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은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원인 증상이다(Chang, Park, & Youn, 2003). 이러한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우울은 치매노인의 건강악화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정도가 낮은 경우 간호제공자의 부담감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Clyburn, Stones, Hadjistavropoulos, & Tuokko, 2000). 따라서 주간보호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부양자의 우울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

리고 Yesavage 등(1983)에 의해 개발된 우울척도에서는 14점 미만은 우울증에서 제외되는 반면, 14-18점은 우울증을 의심하거나 정도의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주부양자의 우울의 정도는 30점 만점에 15.62점을 나타내었고, 이용 5개월 후는 12.59점을 나타내어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으로 우울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데 효과적인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부양자의 생활만족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주간보호서비스는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서비스로 파악되었다. 부양자의 생활만족도는 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Kim & Lee, 1997; Karlawish et al., 2003) 부양자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부양자 뿐 아니라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치매노인 부양자는 치매노인의 수면시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돌봄으로서 사회적 고립감과 정서적 문제, 경제적 부담감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부양자는 피로감이 증가하여 건강악화와 더불어 부양자의 생활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Jun, 2003; Kim, Kim, Kim, Park, & Park, 2007). 따라서 치매노인 주부양자에게는 사회적지지 자원의 이용을 통한 신체적 건강증진과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해 주간보호사업의 이용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치매노인 부양자를 위한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양자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때 치매주간보호서비스는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이라 하겠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피로, 우울,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전향적 서술적 조사연구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처음 이용하게 된 39명의 치매노인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피로 평균 점수

는 30점 만점에 12.44점 이었고, 이용 5개월 후 평균점수는 9.62점으로 2.82점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188, p=.035$ ). 하위영역에서는 신체피로( $t=2.270, p=.029$ )와 정신적 피로( $t=2.277, p=.029$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신경적 피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1.312, p=.197$ ).

둘째, 우울은 30점 만점에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전 평균점수가 15.62점 이었고, 이용 5개월 후는 12.59점으로 3.03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3.066, p=.004$ ).

셋째, 생활만족도에서는 125점 만점에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전 평균점수는 78.23점 이었고, 이용 5개월 후는 82.62점으로 4.39점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2.131, p=.040$ ).

이상에서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에 따른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피로, 우울과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주간보호서비스는 주부양자의 피로와 우울을 감소시키고,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서비스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전체 노인인구대비 재가 보호율은 .4% 수준으로 지역사회 노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욕구충족을 위한 주간보호 사업과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Lee, 2006). 따라서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사회보전복지정책으로 가정에 근간을 두고 진행되는 주간보호사업을 지역사회 내에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간보호효과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의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치매주간보호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주간보호서비스와 요양시설, 요양병원 이용에 따른 부양자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효과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Balla, S., Simoncini, M., Giacometti, I., Magnano, A., Leotta, D., & Pernigotti, L. M. (2007). The daily center care on impact of family burden. *Arch Gerontol Geriatr*, 44 Suppl (1), 55-59.
- Brazel, K., Bedard, M., & Willison, K. (2002). Correlates of health status for family caregivers in bereavement. *J Palliat Med*, 5(6), 849-855.
- Burgener, S., & Twigg, P. (2002). Relationships among caregiver factors and quality of life in care recipients with irreversible dementia. *Alzheimer Dis Assoc Disord*, 16(2), 88-102.
- Chang, S. O., Park, Y. J., & Youn, J. W. (2003). Study on relationships of variables; Attributions of somatic symptoms, fatigue, chronic pain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J Korean Acad Nurs*, 33(1), 26-33.
- Cho, S. Y. (2001). *A study of Alzheimer's disease caregivers' caregiving burden,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lyburn, L. D., Stones, M. J., Hadjistavropoulos, T., & Tuokk, H. (2000). Predicting caregiver burden and depression in Alzheimer's disease. *J Gerontol.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5, S2-S13.
- Cohen, J. (198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
- Dijkstra, A., Sipsma, D., & Dassen, T. (1999). Predictors of care dependency in Alzheimer's disease after a two-year period. *Int J Nurs Stud*, 36(6), 487-495.
- Fitten, L. J. (2006). Editorial: management of behavioral and psychiatric symptoms in dementia. *J Nutr Health Aging*, 10(5), 409.
- Hwang, S. C., & Han, H. K. (2003). *The policy and practice of dwelling elders' welfare*. Seoul: Hyunhak Co.
- Jun, K. W. (2003). *A study on social support to reduce the load of families of senile dementia pat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eoul.
- Jung, I. K., Kwak, D. I., Shin, D. K., Lee, M. S., Lee, H. S., & Kim, J. Y. (1997). 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6(1), 103-112.
- Kalish, R. A. (1975).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y: Cole Publishing.
- Karlawish, J. H., Casarett, D. J., James, B. D., Tenhave, T., Clark, C. M., & Asch, D. A. (2003). Why would caregivers not want to treat their relative's Alzheimer's disease? *J Am Geriatr Soc*, 51(10), 1391-1397.
- Kim, J. S., & Lee, E. H. (2001). A review of the effects of respite care for patients with dementia and caregivers. *J Korean Acad Nurs*, 31(6), 1077-1087.
- Kim, K. T., & Lee, E. H. (1997).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family caregivers with senile dementia patients. *Soc Welfare Res*, 7, 193-213.
- Kim, M. S., Kim, D. H., Kim, J. S., Park, K. Y., & Park, N. H. (2007).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women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J Korean Acad Adult Nurs*, 19(1), 24-34.
- Kim, S. O. (2002). *A study on families' supporting obligation toward senile-dementia patients, who use the day-time-care-center for old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Osan.
- Kim, Y. E. (1999). *Effects of stress management training on the primary care-givers of dementia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Ko, H. J., Kim, M. A., Kwan, Y. S., Kim, C. N., Park, K. M., & Park, J. S. (2004). The fatigue experience of shift work nurses. *J Korean Community Health Nurs Acad Soc*, 18(1), 103-118.
- Kwon, J. D. (1994).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caregiver burden in caring for the demented elderly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E. H. (1998). A study on the care burden of family with senile dementia. *J Welfare Aged*, 1(2), 211-239.
- Lee, H. J. (2006). *The change of caregiver's burden for the dementia elderly by the use of daycare cen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Lee, H. J., Kim, Y. S., Kim, K. R., Kim, J. S., & Seo, J. M. (2003).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family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J Korean Acad Nurs*, 33(7), 936-944.
- Lee, J. R. (2007). *The effects of meridian massage on serum estrogen, climacteric symptom, fatigue and depression of middle-ag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Health & welfare statistical annual report*, <http://www.mohw.go.kr>
-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5). *Social index in Korea: Dementia prevalence rate*, <http://www.nso.go.kr>
- Park, K. H. (2006). *A study on effects of dementia day care services on primary caregiver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Bucheon.
- Park, J. S. (2007). *The relationships among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ufficiency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late middle aged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 Rubin, A., & Bannie, E. (1992). *Research method for social work*. Books and Cole Publishing. 175-178.
- Vellone, E., Piras, G., Talucci, C., & Cohen, M. Z. (2008). Quality of life for caregivers of people with Alzheimer's disease. *J Adv Nurs*, 61(2), 222-231.
- Yesavage, J. A., Brink, T. L., Rose, T. L., Lum, O., Huang, V., Adney, M., & Leirer, V. O.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 Psychiatr Rev*, 17(1), 37-49.